

서울중앙지방법원 실무수습기

I. 들어가며

유난히도 많은 비가 내렸던 지난 7월을 지나 8월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실무수습을 받게 되었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모여 사법연수원에서 집체교육을 받고 각 일선 법원에서 본격적인 실무 교육을 수행하였다. 학교에서와는 다른 분위기와 환경 속에서 모두가 주어진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배우기 위해 노력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생으로서 이법 법원 실무수습을 통해 직접 경험한 내용과 느낌을 부족하나마 전달하기 위해 실무수습기를 쓰게 되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수습기를 읽으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II. 사법연수원에서의 교육

법원 실무수습을 하기에 앞서 먼저 사법연수원에서 2일간의 집체교육을 받았다. 사법연수원 교수님들의 실무과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계속 진행되었는데, 짧은 시간에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 교육내용을 필기하며 전체적인 개요와 핵심에 대해 집중하기 위해 노력했다. 교육과정 중에 특히 인상에 남은 부분은 법조인으로서의 예절교육이었다. 인사하는 법, 술자리에서의 예의, 차량 의전 등 여러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과의 교류와 소통을 위한 전제로서 필요한 내용을 부장판사님께서 직접 시연을 하시며 교육을 하셨다. 그리고 이러한 예절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여러 다른 판사님들께서도 누차 강조하셨다. 사법연수원에서의 교육이 마쳐진 후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각자 배정된 일선 법원에서 진행될 실무교육을

준비하기 위해 주말시간은 여기에 할당했다.

Ⅲ.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의 첫째 주간 교육

1. 실무수습의 시작

8월 8일 오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배정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하나 둘 지정된 장소인 중회의실에 모여 들었다. 모두가 정돈된 느낌의 정장 차림이었고 얼굴을 알고 있는 다른 학교 동기들에게 반가운 인사와 근황을 물어보는 얘기가 이어졌다. 잠시 후 기획법관님의 일정 소개와 함께 부임 신고에 따른 인사가 진행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모인 64명의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민사수석부장님, 과산수석부장님, 형사수석부장님께 차례대로 자신을 소개하며 인사를 드렸다. 이 후에는 민사지도관님의 기본교육과 형사지도관님의 기본교육 및 영장 관련 업무에 대한 기본교육, 법률정보검색에 대한 교육이 담당 관사님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2. 민사합의부와 형사합의부

첫째 날 마지막 시간에는 각자 배정된 지도관님께 실무수습 신고와 인사가 있었다. 3인 1개조로 편성된 조가 배정되었는데, 법원에서의 조 편성은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가나다 순에 의해 이루어져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생 2명과 같은 조가 되었다. 우리 조는 민사합의부 부장관사님께서 담임지도관님이셨고, 형사합의부 부장관사님께서 부지도관님이셨다. 같은 조 조원들과 먼저 민사합의부 주지도관님이신 부장관사님께 부임 신고와 인사를 드리러 갔다. 업무를 보시던 부장관사님께서서는 우리를 너무나 반갑게 맞아 주셨고 한명 한명과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셨다.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셨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생활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셨다. 주지도관님과의 면담이 끝난 후, 조원들과 다음 날 일정에 대해 얘기하였다.

3. 기록에 대한 검토 시작

둘째 날 오전에 주지도관님께 출근 인사를 드리고, 바로 부지도관님께 부임 신고와 인사를 드리러 갔다. 부지도관님께서도 업무를 보시다가 우리를 보고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한명 한명의 질문에 정말 세심하게 답변을 해주셨다. 부지도관님께

인사를 드리고 법학전문대학원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과산기본교육, 조정제도 기본교육이 이루어졌고, 오후에는 미국법학전문대학원생들과의 간담회가 있었다. 간담회가 마쳐지고 난 후 민사합의부 주지도관님께 인사드렸는데, 기록 배부는 형사합의부가 먼저 시작한다고 하셔서 형사합의부로 이동하였다. 형사합의부에서 우배석판사님과 좌배석판사님을 만나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이 날 저녁에 형사기록을 배부 받아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 배부된 기록은 조원들 모두에게 각기 다른 사건이었고, 각자 맡은 기록은 경제사범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처음 받은 기록이었는데 사건 내용도 상당히 복잡했고 기록의 두께도 수 천 페이지를 넘었다. 우리는 모두 기록 검토에 들어갔는데 자정이 가까운 시간까지 검토 한 후 다음 날 계속하기로 하였다. 집으로 가는 길이 좌배석판사님과 같이 같이 가면서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나누었는데, 일에 대한 열정과 사명감이 대단하신 것을 보고 느낀 점이 많았다.

4. 일정에 대한 준비와 진행

셋째 날부터는 조원들과 일정에 대해 자율적으로 조정하며 진행하기 위해 세부적인 계획을 만들기로 하였다. 경매법정 참관과 민사집행기본교육 및 조정의 기법교육을 받은 후, 남은 다른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였다. 이 날 오전에는 민사합의부 우배석판사님과 좌배석판사님을 만나 인사하고 간단한 다과와 함께 담소를 나누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형사합의부에서 계속 기록들을 검토했고, 민사합의부 우배석판사님이 배부하신 민사조정기록들도 함께 검토해 나갔다. 점심에는 주지도관님께서 이탈리아 요리를 사주셨는데, 배석판사님들과 우리 조원들 모두 즐겁고 유쾌한 얘기가 끝없이 이어졌다. 저녁에는 부지도관님께서 전복 정식 요리를 사주셨는데, 저녁에도 이러한 분위기는 계속되었다. 저녁 식사 후 다시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 기록을 검토할 때에는 모두가 최선을 다했고, 조원들 서로가 의견 교환과 치밀한 법리 구성에 집중했다. 배석판사님들과도 여러 의견에 대한 질문과 응답이 이어졌고, 이러한 작업은 밤늦게까지 계속 진행되었다.

5. 일정에 따른 계획과 실행

넷째 날에는 법원장님께서 오찬을 마련해 주셨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배정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위해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원생들과의 얘기도 많이 이루어졌다. 우리는 이 날 국선전담 변호사님과도 만나 앞으로의 법정방청과 기록

에 대한 말씀을 들었으며, 남은 시간에는 민사 신건 및 속행기록들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또한 민사와 형사에 대한 법정방청 일정에 대해 주지도관님과 부지도관님께 설명을 들었는데, 기록 검토와 맞물린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조원들과 중간에 몇 일 더 시간을 내어 준비하기로 하였다. 저녁 시간이 되기 전에는 약식명령을 받아 검토해야 했으므로, 따로 배정된 다른 조원들과 약식명령담당 판사님을 찾아 보았다. 약식명령 기록에 대해 판사님께서 기록들에 대한 분실 우려와 보관에 대해 말씀하셔서 이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썼다. 저녁 이후 에도 기록 검토는 계속되었다. 첫 주 마지막 날에는 전자소송법정방청과 국민참여재판 기본교육이 있었고 오후에는 분당에 있는 전산정보센터를 방문하여 앞으로 진행될 전자소송에 대해 판사님의 설명을 듣고 실제 시연도 직접 해보기도 하였다. 법원으로 돌아온 후에는 다시 형사 신건 및 속행 기록들에 대한 검토가 계속되었고, 자정 넘어 우리 조원들은 형사합의부 배석판사님들과 함께 술자리를 간단히 가졌다. 재판에 대한 여러 얘기도 나누었고, 서로 살아온 얘기를 하면서 서로 웃으며 정말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IV.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의 둘째 주간 교육

1. 추가 일정의 진행을 위한 책임감

법원에서 짜여진 과정을 제대로 소화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일정이 필요하였다. 법원에서는 둘째 주간이 시행되기 전에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법조윤리 시험일정에 맞추어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중간에 일주일 정도의 기간을 주었다. 그러나 막상 첫째 주간의 일정과 그 후 일정을 치밀히 맞춰보니 중간에 비는 기간을 활용할 필요성이 크다고 느꼈다. 특히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한 기록 검토와 법정방청이 매끄럽게 진행되고 이러한 일련의 교육과정을 충분히 흡수하여 배우기 위해서는 이러한 생각이 당연하다고 판단되었다. 우리 조는 조원들 모두 이에 공감하고 쉬는 날 없이 중간에 비는 기간 중 2일 내지 3일 정도를 법원에 나와 추가일정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주지도관님과 부지도관님께서도 이러한 생각을 받아주셨고 우리 조원 모두 추가일정을 진행하며 기록검토와 법정방청에 주력하였고, 나아가 법조윤리시험 준비에도 박차를 가했다.

2. 둘째 주간 교육의 운용

법조윤리시험이 끝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의 둘째 주간 교육이 진행되었다. 첫째 날에는 법정변론이 있었는데 우리 조는 민사법정변론의 피고측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주말에 조원들과 답변서에 대해 준비하고 변론에서의 역할분담 및 변론연습을 여러 번 재점검하여 실제 법정에서 변론에 들어갔다. 둘째 주간에는 집체교육이 하나 정도 있어서 그 외 시간에는 민사에서의 신건 기록, 법정방청 대상사건 기록, 민사조정 기록, 법정 방청, 조정 보조 등에 대한 기록들에 대한 검토와 보고서 작성을 하였고, 형사에서의 신건 기록, 법정방청 대상사건 기록, 국선전담번호 보조 기록, 법정 방청, 국선전담번호 보조, 약식사건 기록 등에 대한 기록들에 대한 검토와 보고서 작성을 계속 하였다. 둘째 주간 수요일 오전에는 영장실질심사 방청이 있었는데, 영장실질심사 담당 관사님께서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구속여부와 관련된 질문들을 하셨다.

3. 우수 법정변론에 대한 시연

둘째 주간 목요일은 법원 실무수습의 마지막 날이었으므로 모두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며 실무수습의 마무리에 여념이 없었다. 오후에 법원장님, 민사수석부장님, 파산수석부장님, 형사수석부장님께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차례대로 마감인사를 드렸다. 우리 조도 검토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주지도관님과 부지도관님의 결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획법관님께서 민사부분 우수 법정변론이 되었다며 다음 날 사법연수원에서 변론 시연을 하라는 말씀을 하셨다. 조원들과 제출할 서류들을 점검하여 내고 난 후, 민사합의부의 주지도관님과 배석관사님들께 그리고 형사합의부의 부지도관님과 배석관사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그리고 다음 날 사법연수원에서 시연할 법정변론의 준비에 들어갔다. 원고측 소장과 준비서면을 검토한 후, 다음 날 오전에 있을 변론에 대비했다. 다음 날 사법연수원에서 민사 법정변론이 이루어졌다. 사법연수원의 기획관사님께서 직접 참관하셨고,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생들도 방청하였다. 재판장님의 날카로운 지적도 있었고 직접 촬영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긴장도 많이 했지만, 무사히 변론을 마칠 수 있었다.

V. 마치며

비록 길지는 않았지만 이번 법원 실무수습을 통해 배운 점들이 너무 많다. 실제 실무에서 진행되는 사건들을 접하고 나뉘 그 사건 하나 하나의 실체를 판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법원에서 기록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못하게 정말 많은 신경을 쓰고, 판단이 도출되는 과정속의 고뇌와 신중함도 알 수 있었다. 경험을 통해서만 느낄 수 있는 점들이라 생각한다. 또한 법원장님과 수석부장님들께서 실무수습을 받는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따듯한 배려를 많이 해 주신 점도 느낄 수 있었다. 나아가 민사합의부의 부장판사님과 배석판사님들, 형사합의부의 부장판사님과 배석판사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시고 질문에도 차근차근 설명해 주신 점 등 감사드릴 부분이 너무 많다. 전체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신경 써주신 기획법관님, 항상 웃으시며 가르쳐 주신 국선변호사님, 그 외에도 사법연수원 교수님 등 감사의 말씀을 전할 분들이 너무 많은 듯하다. 같은 조원으로 함께 얘기하며 즐겁게 생활했던 정규, 학인이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이 글이 앞으로 법원 실무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마친다.